

우리와 함께 자라나는 한국어문의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

도담도담



상명대학교 한국어문화전공

충남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 31 상명대학교 한국어문화전공 (송백관 E311호)

전화 041-550-5112 | 성가은, 권윤서, 최지수, 전호진, 이기현, 이보영

학과장님 인사말



한국언어문화전공 소식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한국어문화전공에서는 2022년도 1학기부터 전공 소식지를 1년에 2회 발간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식지는 한 학기 동안 전공에서 시행한 행사와 재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모습, 아울러 졸업생들의 이야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구성원들의 살아 있는 역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소식지는 전공 커뮤니케이션팀을 중심으로 자료를 모으고 본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팀은 총 6명으로, 때로는 전공 학생회와 협조하면서, 단과대학 O.T 및 전공 해오름식부터 해외학자초청특강까지 행사자료를 만들고 사회를 보는 등 많은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소식지는 전공 누리집에 게시하고, 또한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이메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소식지가 재학생에게는 전공에서 활동하는 사항을 인지하고 참여하게 하는 동기 부여를, 졸업생에게는 재학 시절을 다시 돌아보고 추억을 되새길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8. 전공주임 이희영 드림.

학기 학과 행사

해오름식

일시 2022.05.23. 17:00~20:00
내용 선생님과 학생들이 모여 인사 및 개강 맞이



월드빌리지

일시 2022.05.09. 11:00~18:00
내용 글로벌인문학부대학의 행사로, 각각의 학과가 자신들의 전공 이미지에 어울리는 음식을 만들고 판매하는 행사



제8차 졸업생 초청 취업특강

일시 2022.04.06. 17:30
내용 면접 체크리스트 및 면접 말하기 스킬, 이미지 메이킹의 중요성
강연자 남송이 (한국언어문화전공 06학번)
사회자 성가은 (한국언어문화전공 19학번)



상명대-정치대 언어문화교류회 성과보고회

일시 2022.05.14. 11:00~12:30
내용 두 학교가 '한국어'를 통해 서로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기획, 학생들이 제출한 활동결과물을 통해 전공능력과 잠재역량을 확인
사회자 이수아 (한국언어문화전공 18학번), 고민경 (한국언어문화전공 21학번)



짝선배 짝후배

일시 2022.04.07.~1학기 종강일
내용 짝 선배와 짝 후배가 함께 미션을 완료하면 상품을 주는 행사



제9차 졸업생 초청 취업특강

- 일시** 2022.05.18. 17:30~18:45
내용 신형순 선배님의 특강을 통해 취업전략 세우기
강연자 신형순 (한국언어문화전공 02학번, 한식진흥원 경영지원팀장)
사회자 이보영 (한국언어문화전공 21학번)



SNS 팔로우 인증 이벤트

- 일시** 2022.05.20. 19:00~ (선착순 마감)
내용 SNS 팔로우 후 기간 내에 구글 폼을 접수한 선착순 50명에게 수뭉이 피부썸 2종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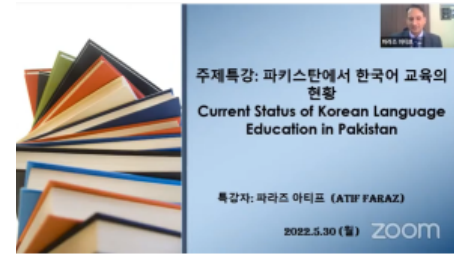


벗꽃 백일장

- 일시** 2022.05.23. 17:00~20:00
내용 시제가 주어지면 운문이나 산문의 형식으로 글쓰기를 하여 각자 자신의 글쓰기 실력을 뽐내는 행사

제4차 한국언어문화전공 해외학자 초청특강

- 일시** 2022.05.30. 17:30~18:45
내용 파키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어교육의 현황을 살펴봄
사회자 이기현 (한국언어문화전공 21학번)



기말고사 간식 행사

- 일시** 2022.06.10. 21:00~ (선착순 마감)
내용 기말고사를 보게 될 학우들을 위해 응원의 의미로 선착순 50명 대상 간식을 제공



비교과 우수자 인터뷰

고민경



Q: 한국어언어문화전공 학우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한국어언어문화전공 21학번 고민경입니다.

Q: 비교과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A: 비교과 프로그램이란 정규 교육과정인 아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입니다.

Q: 비교과 마일리지 장학금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 할 경우에 비교과 마일리지라는 점수가 쌓이는데 이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금까지 참여하셨던 비교과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A: 저는 1학년 입학 전 으뜸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1학년 1학기에는 상명튜터링 프로그램에 멘토로 으뜸스타트에 참여하였습니다. 1학년 2학기에는 상명튜터링과 스터디 상생 플러스에 참여하였으며, 1학년 방학 기간에는 ICT 기초소양교육에서 GTQ와 컴활 능력 2급 수업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학년부터 지금까지 쪽과 내 문예창작 소모임인 '해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Q: 비교과 관련 정보는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얻으셨나요?

A: 저는 주로 대학생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과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정보를 얻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A: 저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교과활동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탐구, 다양한 선배 및 동기들과의 만남, 함께 의논하며 나오는 다양한 생각들까지 생각치도 못하게 많은 것들을 얻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비교과 활동을 해볼까 망설이고 있는 학우가 있다면 저는 꼭 참여해 보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탐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업을 들으며 얻는 것과는 다른 지식들을 얻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니까요!

나에게 잘 맞는 비교과는 무엇일까?



김동욱 장학금 프로젝트 인터뷰 꿈 배달부

서수빈
이은빈
김지윤
황정진

① 팀 소개

저희 “꿈 배달부” 팀은 현재를 살아가는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에게 책 <달러구트 꿈 백화점>의 메시지 중 ‘꿈과 힐링’을 직접 배달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꿈 여행의 길잡이 역할도 자처하여, <달러구트 꿈 백화점>을 누가,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안내하고자 합니다.

② 프로젝트 소개

해가 뜨는 순간부터 질 때까지 바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독서라는 매개체를 통해 힐링의 순간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저희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프로젝트 취지에 적합한 도서인 <달러구트 꿈 백화점>을 각자 읽고 난 후 함께 의견과 감상을 나누며 자유롭게 토론하는 활동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활동을 전제로 보고서와 리플릿을 제작하였는데 팜플렛은 이 책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 또한 이 책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책을 소개하는 동시에 독서 가이드를 제시해주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꿈과 힐링’을 담았습니다.

③ 김동욱 장학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

평소, 다들 독서를 좋아하지만, 삶에 여유가 없는 현대인들과 다름없기도 한 팀원들은 각자 친구들과 함께 독서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다들 우연히 ‘한국언어문화학과’ 홈페이지에서 ‘김동욱 장학금’ 공모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었던 계기와 가까운 주제 중 ‘독서 가이드북 만들기, 가이드 제시’ 등을 선정했고 이를 기반 삼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④ 김동욱 장학금 프로젝트 활동 소개

다들 각자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 활동하고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점이 뜻깊었다. 별다른 계기 없이는 자신의 시간을 내면서 까지 하기 힘든 활동이었지만, 프로젝트라는 한 목표로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 덕에 우리는 다양한 관점과 시선으로 책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책에서 얻은 것들을 오래 간직하게 되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프로젝트를 마치기 위한 책임감으로 활동에 임했기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뿌듯하면서도, 책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삶의 험터가 없는 사람들에게 힐링과 위로를 건네 주는 ‘꿈 배달부’]가 된 기분이 들었다.

⑤ 우리에게 김동욱 장학금은 '000'이다

우리에게 김동욱 장학금은 꿈이자, 하랑이자, 또 다른 목소리이자, 기회다.

김동욱 장학금은 우리의 공통된 키워드인 꿈이었다. 함께한 시간이 꿈과 같이 느껴졌고,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의 협동과 목표를 향해 높이 날아감과 동시에 성장했다. 혼자보단 같이 내는 목소리로 프로젝트의 취지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갖가지 이유로 버린 우리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펼칠 수 있었던 기회였다.



김동욱 장학금 프로젝트 인터뷰 정박이들

박다운
정예진
이지언
이윤정



① 팀 소개

안녕하세요, '정박이들'입니다. 저희는 한국어언문화를 전공하고 있고, 현재 2학년입니다.

② 프로젝트 소개

저희는 '우리가 다시 쓰는 한국문화'라는 프로젝트 주제를 정해, 한국어언문화전공자로서 배운 우리 한국의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숭대, 독립 기념박물관,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현대문학작품이라는 4가지 키워드를 주제로 삼아, 여러 문화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영상, 카드 뉴스, 기사, PPT 등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하기 편한 콘텐츠로 제작하였고, 추후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SNS에 업로드 할 생각입니다.

③ 김동욱 장학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

저희는 한국어언문화전공자로서, 1학년, 2학년에 배운 전공 강의를 활용할 수 있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일이 참 보람 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④ 김동욱 장학금 프로젝트 활동 소감

저희는 전공 강의를 들으며,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한국어언문화전공자로서, 배워왔던 우리의 전통 문화와, 문학 작품 등을 주제로 삼아,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경험은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공 공부를 할 때에도 이번 김동욱 장학금 프로젝트는 실력 성장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⑤ 우리에게 김동욱 장학금은 '000'이다

우리에게 김동욱 장학금은 '요점정리노트'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배우든, 배운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장학금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어언문화전공자로서 배워왔던 내용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김동욱 장학금 프로젝트를 통해 배워왔던 내용들의 요점을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점정리노트'라고 생각합니다.



졸업생 선배님 인터뷰

한주성 작가님 (상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10학번)
경력: '갯잇뷰티 2017' 구성 작가, '놀라운 토요일' 구성 작가...

Q: 현재 재학 중인 한국어문화전공 후배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한국어문학과' 10학번으로 학교를 오갔던 한주성이라고 합니다. '언어문화'까지 포함된 전공 과 이름이 멋져 보이네요. 한국어라는 언어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화까지 수용 가능한 멋진 후배님들이실 거라 예상됩니다. 현재 저는 햇수로 8년째 방송작가로 일하고 있으며, 라디오를 거쳐 현재는 TV 예능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Q: 방송작가란 어떤 직업인지 궁금합니다.

A: 방송작가는 TV, 라디오, 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플랫폼의 매체에 공개되는 영상물의 구성을 짜고, 섭외, 촬영, 대본 작성, 편집, 업로드까지 무사히 '방송'에 이르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작가'라는 단어에서, 글 쓰는 일만을 하는 직업이라 생각한다면 큰 코 다치실 거예요!

Q: 방송작가를 꿈꾸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중학교 시절에 한 아이돌 그룹 멤버를 무지 좋아했었는데요 그 때 그 연예인이 진행했던 라디오가 있었어요. 그에게 이름을 불리고 싶어서 라디오 프로그램의 요일별로 다른 코너에 맞춰 매일 사연을 썼죠. 예를 들어 월요일엔 미니 드라마, 화요일엔 초대 게스트 질문, 수요일엔 신청곡과 사연 등 날마다 다른 주제로 글을 썼어요. 그러다 하루는 오픈 스튜디오 이벤트에 당첨되어, 부스에 놀러 갔는데요. 그날 청취자들의 글을 선별해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입에 오르게 하는 엄청난 분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라디오 작가'라는 직업이었죠. 일하면서 좋은 음악을 크게 들을 수 있고, 공감되는 사연을 직접 DJ가 읽도록 대본화할 수 있다는 데 반해서 그때부터 쪽 이 직업을 꿈꿨던 것 같아요.

Q: 방송작가는 어떤 경로로 취업할 수 있나요?

선배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A: 저는 MBC 아카데미 구성작가 예능 반 과정을 수료 후, 거기서 알게 된 선생님, 작가님, 동기들을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얻었습니다. 재학 시절과 졸업 직후에는 아카데미만이 방송작가가 되는 길이라 여겼는데,

실제로 일을 해 보니 아카데미 과정 없이도 취업한 작가님들이 많으셨어요. 어떤 기업 채용처럼 크게 공고가 나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단체 카톡방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 알음알음 구인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카데미에서 얻는 가장 큰 도움은 인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카데미에서 선배 작가님들께 배우는 내용도 추후엔 탄탄한 자양분이 됩니다.)

Q: 방송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있으면 좋은 자격증이나 경험 등이 있을까요?

A: 무조건 다양한 경험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경험이든 도움이 됩니다! 아이돌 덕후라 커뮤니티를 폄된 경험도, 영화 덕후라 시간을 버렸던 경험도, 세월아 내월야 훌훌 버리고 여행만 다녔던 경험도, 가만히 있지만 앉았다면 모든 게 방송작가가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자격증은 딱히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외국어를 잘하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 더 생기고, 문서 정리 능력이 뛰어나다면 칭찬받는 막내가 되겠지만..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한 주제의 방송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경험들이 후배님들의 방송을 위한 경험치가 될 겁니다.

Q: 방송작가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인가요?

A: 완전히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자면요!

첫 번째는 '위아래로부터 배우자.'

방송작가 직업의 특성상 연차로 계산되는 서열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포지션은 없습니다. 내가 10년 차여도, 나이가 많아도, 연차에 따라 나보다 높은 선배가 있다면 막내가 될 수도 있어요. 억울해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연차가 높아져 더 많은 후배를 만나더라도, 그들에게 내가 하던 방법만을 강요하기보다는 신선한 생각과 방식을 교류하면서 강한 사고방식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정답은 없다.'

위 문단에서, 방송작가는 연차 서열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건 실무를 할 때 일이고요. 방송 프로그램상으로 봤을 때는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방송을 준비할 때는 늘 제작진 다수의 인원이 함께 빙 둘러앉아, 본인의 의견을 나누며 회의를 거치는데요.



졸업생 선배님 인터뷰



방송은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만인의 아이디어를 모아 가장 재밌고 보기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주눅 들지 않고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Q: 방송작가의 특성상 업무시간 등이 불규칙할 때가 많은데 이러한 면에 장단점이 있을까요?

A: 장점은 남들 일할 때 노는 날이 있다는 점, 단점은 남들 놀 때 일하는 날이 있다는 점입니다. 공휴일이든, 명절이든, 재해가 일어난 날이든, TV는 쉬지 않고 방송되죠. 그걸 누군가는 꾸준히 만들었기에 우리집 TV가 떠들고 있었을 거예요. 프로그램별로 녹화 날과 방송 날이 다르고, 그 사이클에 따라 움직일 뿐, 달력의 빨간 날은 중요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목요일이 공휴일이고, 그 프로그램이 매주 목요일 녹화 날이면 그날 녹화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녹화 다음 날은 보통 쉬니까, 남들은 금요일 평일 출근을 할 때, 평일의 여유를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방송작가는 대부분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시즌제 프로그램이 끝나거나, 프로그램을 그만두고 나오게 되면, 본인이 원할 때까지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금전적인 각오는 해야겠지만요!

Q: 방송작가의 업무환경과 복지 제도가 궁금합니다.

A: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네요. 워라밸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나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또, 요즘 레귤러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 몇 년 동안 꾸준히 한 프로그램에서 월급 걱정 안 하고 쪽 일하기도 쉽지 않아요. 업무환경은 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일단 식사와 늦은 시간 택시비는 거의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식사를 회사에서 해야 할 일과, 귀가 시간이 늦는 경우가 많다는 거겠죠...? 흠.....

Q: 선배님께서 방송작가를 하시면서 느꼈던 현실적인 방송작가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A: 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글을 쓰는 일만 하는 '작가가 아닌'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반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간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1인 방송을 제외하고 모든 방송 프로그램은 혼자서 만들 수 없습

니다. 한 프로그램 안에 작가만 해도 여러 명, 피디님들, 감독님들, 출연자들 등 수많은 인원이 함께 모여 생각하고 의견을 공유해 만듭니다. 때문에 소통을 잘하는 것이 능력이 되기도 해요. 쉽지 않은 일인 만큼, 이 부분에서 강한 작가님들이 통련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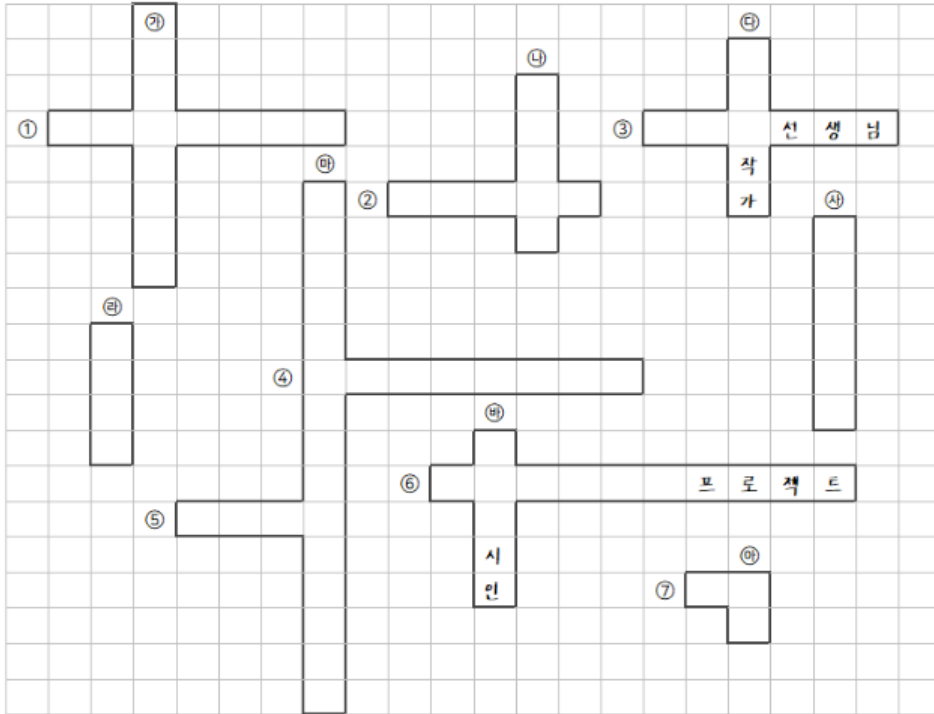
또, 어느 정도의 FM, 어느 정도의 융통성,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센스'. 어디서 배울 수 없는 이것들이 주로 필요하고요, 아이디어도 많아야 하고, 힘도 세야 하고, 다방면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더라고요. 다방면의 능력이 필요한 만큼, 어떤 것도 본인만의 능력이 될 수 있으니 방송작가를 고민한다면 글쓰기 실력만으로 좌절하지 말고, 도전해 보세요!

Q: 마지막으로, 방송작가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이 글을 다 읽고선, '방송작가'라는 직업에 대해 뒷걸음질 칠 후배님들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가 열정을 쏟아 생각을 하고, 내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촬영이 진행되고, 그게 영상이 되어 만천하에 공개된다는 게 얼마나 짜릿한 일인지 겪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일한 하루하루가 포털사이트에 프로그램 기록으로 남고, 고생하는 만큼 재미있는 영상으로 OTT에 남고, 장면마다 추억이 되는 일들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말풀이



* 빨간색 문항 설명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가로 열쇠

- ① 우리 한국어언어문화전공의 1학년 1학기 개설 강좌로, 한국어 교육학에 관해 개괄하는 과목
- ② 연역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연습하는 모형으로, PRESENT→PRACTICE→PRODUCT의 단계로 구성된다
- ③ 2022년 기준 한국어언어문화전공의 학과장 교수님의 성함
- ④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우리 전공도 2017학년도 교육과정 이후부터 해당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 ⑤ 2022학년도 한국어언어문화전공 학생회의 이름으로, '좋은 일이 다 온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 ⑥ 김동욱 선생님의 퇴임에 즈음하여 전공 교수와 졸업생이 기부한 '김동욱 장학기금'을 뜻깊게 사용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장학금 프로젝트
- ⑦ 생각,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에 쓰는 음성, 문자 따위의 수단. 또는 그 음성이나 문자 따위의 사회 관습적인 체계

세로 열쇠

- ⑧ Canale&Swaine이 기술한 4가지의 의사소통 능력 중 하나로,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상황에 맞추어 발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⑨ 귀납적인 방법으로 훈련하는 모형으로, Task1→Teach→Task2의 단계로 구성된다
- ⑩ 대한민국의 시인으로, 모더니스트로 출발하여 지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룬 작품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4·19 혁명 이후 현실 비판 의식과 저항정신을 바탕으로 한 참여시를 썼다 주요 작품으로는 '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등이 있다
- ⑪ 2022년 8월에 발간된 한국어언어문화전공 소식지의 이름
- ⑫ 상명대학교 한국어언어문화전공이 담당하고 한국어언어문화전공 커뮤니케이션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이름
- ⑬ 일제강점기 때의 시인으로, 북간도에서 출생하였으며, 연희 전문학교를 거쳐 일본에 유학한 후 1943년에 독립운동의 혐의로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규슈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하였다 광복 후 그의 유고를 모은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발간되었다
- ⑭ 1936년 <조광>지에 발표된 이효석 작가의 단편 소설로, 장돌뱅이인 허 생원이 자신과 함께 다니던 동이가 자기 아들임을 알게 되는 과정을 보여 주면서 애육과 혈육의 정이 지나는 자연성과 신비성을 짙은 향토색과 메밀꽃의 정경 속에서 그리고 있다
- ⑮ 어떤 일정한 범위 안에서 쓰이는 단어와 수호 또는 단어의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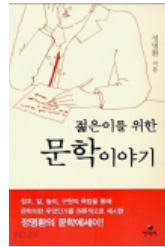


장르별 도서추천



인문

제목: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가 있다 | 저자: 김혜남
이 책은 저자가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영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담겨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등장인물의 심리를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 인간 본질의 심리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평소 심리에 관심이 많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해석을 통해 식견을 넓히고 싶은 학우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에세이

제목: 젊은이를 위한 문학이야기 | 저자: 정명환
이 책은 문학의 중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책을 읽다보면 글이 설명해주는 문학의 매력에 어느새 빠져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로 인하여 문학의 가치가 점점 흐려지고 있는 요즘 문학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길 바라며 이 책을 추천한다.



교양

제목: 우리말산책 | 저자: 이익섭
이 책은 우리말의 기본적인 맞춤법부터 여러 가지 방언까지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있다. 오늘날 올바른 한국어 말의 규칙성이 파괴되고 무분별한 말들이 오가는 시대이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말의 소중함을 알고 올바른 한국어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고전소설

제목: 동물농장 | 저자: 조지 오웰
작가 조지 오웰은 20세기 영미 문학사에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그가 유명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 책이 있었다. 당대의 현실을 우화형식으로 아주 잘 풍자해놓았다. 문학의 사회비판적 기능을 매우 잘 다룬 책이니 한국어언문화전공 학우들이 꼭 한 번 읽어봤으면 하면 책이다.



소설

제목: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 | 저자: 이도우
로맨스 장르를 좋아하거나 힐링이 필요한 학우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저자가 주변에 있을 법한 연애 이야기를 몽글몽글하고 파스한 느낌으로 아주 잘 표현해놓았다. 내용도 술술 읽혀서 시간 날 때마다 가볍게 읽기 좋은 책이다.



자기계발서

제목: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 저자: 데일 카네기
이 책은 다른 자기계발서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다양한 사례를 근거로 들어 설명해준다. 뭔가 어려워 보일 것 같은 표지와는 다르게 술술 잘 읽혀지는 책이니 자기계발서를 찾는 학우가 있다면 이 책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